

코트라 등 수출지원기관 원팀 결성... 현장 맞춤형 지원 나선다

산자부, 수출현장지원단 구성
매주 수요일 지역 현장 방문
기업별 애로 해소 방안 논의

에너지가격 상승과 환율 급등 등의 여파로 6개월 연속 무역적자가 계속되는 가운데,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유관기관이 한 팀으로 현장을 직접 방문해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현장지원단을 구성, 14일 대구 소재 성서산업단지 방문을 시작으로 본격 운영을 가동한다고 이날 밝혔다.

수출현장지원단은 지난달 31일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수출 경쟁력 강화 전략'의 후속조치로 구성됐다.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이 단장을 맡았고, KOTRA, 무역보험공사, 산업단지공단, 무역협회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매주 수요일 지역 수출현장을 방문해 기업별 수출 애로에 대한 해소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단기간 내에 해소



13일 부산 남구 신선대 부두에 컨테이너가 입항하고 있다. /뉴스1

가 어려운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총리주재 '무역투자전략회의'에 상정함으로써 애로해소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수출현장지원단은 이날 오후 대구 성서산업단지공단내 대구비즈니스센터를 방문해 1차 간담회를 열었다.

입주기업인 태창공업(자동차부품), 서창전기통신(전력량계), 영풍(식품), 영일엔지니어링(자동화기계), 대원지에스아이(광학기계), 우경정보기술(I

T) 등 6개사가 무역금융, 물류, 해외마케팅 등 수출애로 해소를 건의했고,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들은 애로 해소방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출바우처 서비스별 정산회수와 범위 제한 등으로 해외 마케팅 활동에 제약이 발생한다는 기업들의 건의에 대해 올해 10월부터 정산회수, 허용기간, 범위 등의 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며, 기업별 해외 마케팅 활동 실적을 반영해

추가 완화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 'OPEN TOP'과 같은 특수 컨테이너 예약이 매우 어려운 상황을 파악, 단기적으로는 특수 컨테이너 예약상황 개선을 위해 국적선사와 지속 협의하고, 장기적으로는 국적 선대 확충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출확대를 위한 설비 투자비와 운전자금 확보를 위해 무역금융 한도 확대가 필요하다는 수출기업 요청에 따라 수출신용보증 등 한도를 기존 50

억원에서 최대 100억원으로 증액하고, 수출채권 유통화 보증상품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 차원의 추가 투자도 지속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문동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하반기에는 수출기업의 대표적인 해외 마케팅 애로로 조사된 물류비, 해외인증 획득, 대규모 전시·수출 상담회 등에 120억원을 추가 투입해 무역수지 완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오늘 기업에서 건의한 애로가 신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지속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출현장지원단은 이날을 시작으로 광주(9.21), 경남(9.28), 천안(10.5), 인천(10.12), 서울(10.19) 등의 순으로 매주 전국 주요 산업단지를 방문할 계획이다. 현장 참석이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 무역협회가 '수출입규제프리 365'를 통해 온라인 애로 접수를 상시적으로 진행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인천공항공사, 20일 세계항공컨퍼런스 개최

김경욱 "항공산업 '재건·재도약' 방향성 공유"

(인천공항공사 사장)

1000여명 항공산업 전문가 참가
업계 주요현안 관련 5개 세션 진행

코로나19 이후 인천에서 3년 만에 제 6회 세계항공컨퍼런스가 열린다.

14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파라다이스시티 인천에서 '제6회 세계항공컨퍼런스(World Aviation Conference 2022)'를 개최한다. 올해 6회째를 맞은 이번 회의는 1000여명의 항공산업 전문가 및 관계자들이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회의로 매년 인천공항공사가 주관·주최해 왔다.

지난 2019년 개최 이후 이듬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악화로 지난 2년간 온라인 회의로 대체되던 행사가 올해부



터는 정부의 국제선 활성화 정책에 따라 3년 만에 인천국제공항에서 다시 개최되는 것이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국제공항협

회(ACI) 루이스 펠리페 데 올리베이라(Luis Felipe de Oliveira) 세계본부 사무총장의 기조연설 '포스트 팬데믹 시대, 항공산업이 나아갈 길'을 시작으로 항공업계 주요 현안과 관련한 5개의 세션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세계항공컨퍼런스는 항공산업 주요 트렌드와 정책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소중한 인적 교류가 이뤄지는 장으로 인천공항이 추구하는 '삶과 문화, 미래의 연결'과 맥을 같이 한다"면서 "올해 행사는 특히 항공업계의 완전한 재건과 재도약을 위한 의지를 확고히 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정운 기자 zelkova@

"전세보다 계약 복잡하고 주택 물색 '별따기'"

LH 전세임대 제도 실효성 논란

김병욱 의원, 제도 개선 필요성 지적
"임차인·임대인에게 부담으로 작용"

사회초년생의 주거 안정을 도우려고 시행되고 있는 LH 전세임대 제도가 오히려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전세임대주택당첨자 및 실업주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사업의 당첨자 대비 실업주율이 50%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LH에서 선정한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당첨자 대비 평균 실업주율은 각각 55.5%, 53.5%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 청년 전세임대는 2017년 50.03%, 2018년 60.13%, 2019년 53.62%, 2020년 64.60%, 2021년 51.48%의 실업주율을 보였고,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2017년 56.67%, 2018년 59.28%, 2019년 68.70%, 2020년 42.04%, 2021년 54.28%의 실업주율로 전체적으로 50%대에 불과했다.

이에 김 의원 측은 LH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주거지원 사업인 '전세임대'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제기했다.

LH 전세임대 제도는 일정 조건을 갖춘 청년과 신혼부부가 집을 찾아오면 L

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싸게 재임대해 주는 제도다. 입주대상자가 직접 주택을 물색하고, LH가 해당 주택을 검토해 전세금을 지원해 주는 절차를 거친다.

김 의원의 지적은 직접 발품을 구해 찾아야 하는 주택 물색 과정이 '하늘의 별 따기'인 점을 지적했다. 일례로 LH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따르면, 청년 전세임대의 경우 수도권 1인 거주 시 60㎡ 이하 주택에 최대 '1억2000만원'의 한도로 전세보증금을 지원해 주는데, 수도권 전세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 해당 가격대 매물을 구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주택 물색 기간 6개월 내에 집을 구하지 못하면 대상자 선정은 무효가 된다.

계약 과정이 일반 전세보다 까다롭고 복잡하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LH 등에 따르면, 계약 관련 관리 분석 과정에서 정보 노출에 부담을 느끼는 임대인들이 많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일반 계약보다 좋은 혜택이 없고 오히려 부담만 가중되니, 임대인이 전세임대 제도를 기꺼이 선택할 이유는 없다는 것.

이에 김병욱 의원은 "적절한 전세임대 주택을 찾기 어려운 현실에서, 주택 물색 과정을 입주자에게만 맡겨놓는 것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일"이라며 "우선, 시장가격에 맞게 전세임대 전세 가격을 현실화하고, 심사 절차의 효율성 제고, 세제 혜택 확대 등 임대인을 유인할 수 있는 실용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한국잡월드, 교육기부 우수기관 선정

'온잡' 등 다양한 프로그램 성과 인정
김영철 이사장 "공적 책임 강화할 것"

국내 최대 종합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가 올해 섬마을 학교 교육기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14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잡월드에서 따르면 교육부가 2022년 신규

교육기부 우수기관으로 선정해 올해부터 직업 진로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도서·벽지 소재 학교 대상으로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김영철 한국잡월드 이사장은 "지난 2019년 교육부로부터 교육기부 기관으로 인정받았다"며 "전국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직업 진

로 프로그램인 '온잡(ONJOB)'을 비롯해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체험과 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이사장은 "잡월드를 찾기 어려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게 우수한 진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어 기쁘다"며 "직업 진로 대표 공공기관으로서 차별 없는 탐색 기회를 지원해 공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美 인플레이 쇼크' 코스피 2380선 급락 출발...외국인·기관 매도
▲ 전기차·반도체 이어...바이든 "바이오도 미국 우선" /사진 뉴스1



▲ 영어왕 장례식에 최고위급 인사 500명 참석...의전 '초비상' /사진 뉴스1
▲ 중국, 서방 금수조치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해 '횡재'

▲ 애플, TSMC '차세대 3나노' 칩 내년 아이폰·맥에 탑재
▲ 중국, 멕시코에 공장 대거 건설해 미국 관세 우회